

기획에 대하여

적응과 변화: 배움의 도구와 미술관

김정현

Introduction

Adaptability and Transformation:
Learning Tools and the Museum

Kim Junghyun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2019년 1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미술관에서의 배움’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이야기 만들기: 새로운 지식을 위한 배움의 도구와 미술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에 주목하여 전시, 수집, 연구, 교육 등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배움의 장소로서 미술관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한 북서울미술관은 미술관이 위치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주민 친화적 기관이자 사회문화적 변화와 대중의 의식을 반영하는 동시대 미술관으로서, 지역민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북서울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4개 부분(북서울 미술아카데미, 지역 친화 프로그램,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학술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기획되고 있으며, 지역 친화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학교, 복지 센터 등의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전시 감상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3학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가 많고 청소년의 인구구성비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는 청소년을 중점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확대하였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예로, 전시장이 한산한 저녁시간 특별히 학생들을 초대하여 작가와 함께 미술관을 탐방하고 작품을 제작해보는 «SeMA Teen Night»과 수장고, 하역장, 풍동실 등 전시실이 아닌 미술관 공간을 다양한 미션을 통해 탐색하며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미술관의 숨은 공간을 다면적으로

인식해보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여름 진행된 한국근현대명화전 «근대의 꿈: 꽃나무는 심어 놓고»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전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과 «감상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전시장을 찾은 청소년은 보호자의 별다른 지시 없이도 감상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스스로 작품을 관찰하며 작품이 제작되었을 당시 작가가 처한 상황과 감정들을 이해하고 이를 어떠한 붓질과 색감으로 표현했는지 상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예술 작품을 통해 미술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배움은 표피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사색하고 경험하여 각각의 마음속에 울림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 울림을 기억하고 저마다 그 기억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각각의 미술관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일상에서 예술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관람객에게 국공립 미술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자 공공시설이다. 관람객의 수요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미술관과 관계를 맺길 원하는지에 대해 미술관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경험과 실천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 관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분석이 필요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세계화 시대의 동시대 미술관이 자신이 위치하고 관계하는 ‘지역성’에 집중할 것이다.

어느새 부터인가 동시대 미술관은 ‘지역’과 관계 맺으며 지역민의 일상에 자리하고 실천을 끌어내기 위한 시민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모색해왔다. 즉 어떠한 행동양식을 이론으로서만 학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형성하는 조건들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예술가들이 지역에 투입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거나 예술가와 지역민이 함께 직접 밥을 지어 나눠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예술의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들을 해왔으며, 궁극적으로 예술을 통해 시민 사회의 쟁점을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실천의 한 예로 올해 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된 2019 서울 포커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에서 진행된 여운혜 작가의 도로변 전단지예 부착된 청테이프 조각을 하나의 화폐로 상정하고, 청테이프를 모아오는 관람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인 <원파운드샵>을 운영하였다. 작가는 지역민들로부터 대부분의 물건을 기증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가고자 계속해서 미술관을 재방문했다. 전시기간 동안 실제로 미술관 주변 일대에서는 그간 도로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청테이프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전시가 종료된 후에도 상점을 찾는 주민들의 문의가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나름의 실천적인 몸짓을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몇 가지 과제가 계속해서 남는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예술이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묻기 이전에 ‘예술이 정말 시민 공간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가’, 나아가 ‘예술이 진정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북서울미술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는 장소이자 예술 작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문화를

• 시민 공간은 공공 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디어나 공개 토론장, 유사 깊은 살롱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공공 공간과는 달리 시민 공간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 시민 공간은 대개 공동 행동, 자기 주도력, 조직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을 들여야 하고, 무언가를 조직해야 하거나 무엇이든 ‘해야’한다. 파스칼 길렌, 사이에 배팅하라: 예술, 교육과 시민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모두의 학교』, (미디어버스, 2016), pp. 45~48.

만들어어나가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친숙함과 새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 미술관으로서 적응과 변화라는 이중의 잠재성을 지니며, 그 안에서 관람객은 미술관과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서로를 연결해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과 해답은 배움의 장소로서의 미술관이 수행 해야 할 책임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며 그것을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축적해 온 실천들에 있을 것이다. 초청된 6개의 기관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서로의 입장들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미래에 배움의 장소로서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On December 13–14, 2019, SeMA, Buk-Seoul Museum of Art is holding an international symposium *Creating Stories: Learning Tools for New Knowledge and the Museum* under the theme of ‘learning in the museum.’ The symposium aims to bring attention to the art museum’s educational role and explore the institution’s potential as a learning platform that produces and shares knowledge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exhibitions, collections, research, and education.

In 2019, SeMA, Buk-Seoul Museum of Art enters its sixth year as a neighborhood-friendly institution, a contemporary art museum that responds to sociocultural shifts and the public consciousness, shaping the institution’s identity in its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in the area through the practice of exhibition and educational program-making.

SeMA, Buk-Seoul Museum of Art’s educational program is carried out in four programs: the Buk-Seoul Art Academy, the Local Initiative program,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and the Academic program. The Local Initiative program in particular is created in partnership with local institutions, schools, and community centers, designing creativity programs based on exhibition experiences. Also, located in Seoul’s 3rd school district, the institution reflects the highly young demographic as a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 and young visitors have become our target audience as we expand our educational program from 2019.

One example of our youth-focused programming is *SeMA Teen Night*, a program where students are invited to the exhibition space during non-peak evening hours to explore the museum with the exhibiting artists, sometimes creating artwork together with them as well. There is also

a program which explores hidden non-exhibition spaces such as the collection storage room, the loading dock, or the ventilation system room, which allows the student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art museum from diverse perspectives. During the exhibition of masterpieces of modern Korean painting *The Dream of Modernity: Planting a Flowering Tree* this past summer, we developed a *Viewing Guide* with a group of school teachers that was made for the youth to self-initiate their exhibition viewing experience. Without help or instruction from their parents, the young visitors to the exhibition space could observe the artwork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is guide. The guide invited them to imagine each artist's situation and emotions at the time of creation, how the artists expressed themselves, and what they sought to express in their brushstrokes and colors. Likewise, the viewing experience that the art museum seeks to initiate through programs such as these is not one where viewers learn from the surface beauty values of the artwork, but an experience which deeply resonates in the heart from the practice of spending time and contemplating while viewing the artwork. When such an experience resonates within the young visitors' hearts and leaves a lasting impression, each of them will then go on to create their own art museums from their own memories and imaginations. That will be the moment when the power of art begins to take its course in their everyday lives.

A publicly run art museum is a public space which is operated through taxes paid by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he art museum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e audience's demands, listen to the public's opinions on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y seek to have with the art museum, and commit to producing meaningful experiences and practices for the public. To do this, art museums must always have

a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understanding of their audience, and in that context, also understand the position the institution holds as a contemporary art museum with a focus on the meaning of 'locali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t some point, the contemporary art museum began to explore how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locals,' how to participate in people's everyday lives, and how to be a place that plays a role in initiating the action of 'doing together' as a civil space[•]. In other words, the contemporary art museum must go beyond educating itself on the theoretical method of doing, and proactively fuel and build an environment that creates the conditions for the act of 'doing.' For example, artists have been sent to regions to make new communities, or create meals with the local community as a way of bringing everyday motions into the framework of art, ultimately raising the voice of the issues in civil society.

As an example, during the exhibition *Seoul Focus: Nothing Twice* at SeMA, Buk-Seoul Museum of Art, artist Yea Woonhae's work *ONE POUND SHOP* was a project which turned the green duct tape used to hang advertisements on the streets into a form of currency, creating a shop where goods could be traded for by participating audience members who collected scraps of the tape. The project was predominantly operated through donated objects contributed by the local residents, and a surprising number of participants revisited the art museum to purchase object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During the exhibition

[•]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civic place and a civil space. A civic place is a platform for media and open discussion where everyone may speak freely, like the historic salons. A civil space is built on the premise of being an "action"-based platform; it builds on the ideas of collective action,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ower and believes that thi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people's efforts. As a characteristic output, civil spaces must be organizing something or must be "doing" something. Pascal Gielen, "Bet in the Inbetween: A Few Thoughts on Art, Education and Civil Space," in *Learning Together* (Seoul: Mediabus, 2016), pp. 45 - 48.

period, there was not a piece of green tape to be found on the streets around the museum, and after it ended, many residents asked whether the shop was still in business. Though the project was successful in initiating action among its participants, we were left with some problems to think about: What does art seek to accomplish through these actions? And before asking that question, can art really be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creation of public spaces? Furthermore, can art truly have a role in education and supplement the existing educational system? These are difficult questions that arise in many shapes and forms.

As a public institution, SeMA, Buk-Seoul Museum of Art is a place that coexists within the everyday domain of local resident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a space that uses art to create new visual culture. In other words, it is a locally based art museum where familiarity and innovation coexist. The art museum has the double potential for both adaptability and transformation as it continues to discover new ways to connect and build its relationship with its audience. The questions and solutions proposed through this symposium are an exploration of the role and potential of art museums, and also an investigation into other accumulated practice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The six invited institutions will present their perspectives based on these questions and imagine together the potential of SeMA, Buk-Seoul Museum of Art as a learning space for the future.

기획에 대하여

미술관은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이한범

Introduction

Can the Art Museum Become a Place of Learning?

Lee Hanbum